

복음으로 새가족 바로 세우기
새가족 학습교재



새가족
학습자료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

장로회 **하나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16길 17

환영의 말씀

하나교회의 가족이 된 여러분! 각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하나교회에 오셨고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복음으로 인한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새 가족과 새 신자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 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믿음이 건강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속한 교회를 통해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건강한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하는 곳이기에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나 처음 교회로 나오신 분들 모두가 새로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러 가지 생소한 부분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 생활의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배워 나가신다면, 언젠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잘 적응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는 새 가족부대가 필요하듯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교재가 주님 안에서 새 포도주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기초공사를 든든히 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교회 담임목사 한광수

목 차

제 1 과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1.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2.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이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3.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제 2 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1. 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3. 믿음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며 자신을 믿음의 대상에게 전인격적으로 성령 안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4. 참 믿음을 소유할 자가 누릴 영적축복은 무엇입니까?

제 3 과 신앙생활 안내

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3.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다음의 적극적인 방법들에 대해 나누고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제 4 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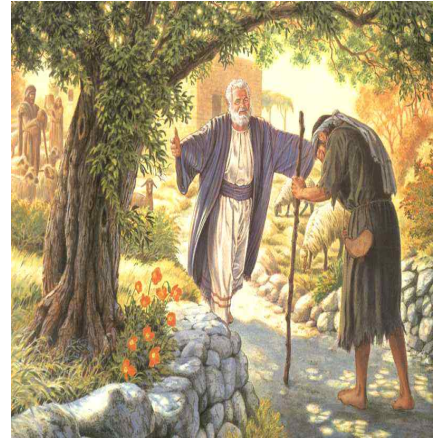
1.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2.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며, 이 두 성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4. 성경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5.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1 과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집을 떠난 탕자 이야기

이 이야기는 집을 떠난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재산과 유산을 미리 챙겨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집에 돌아 왔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탕자의 아버지는 극진한 사랑으로 탕자를 맞이했고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탕자가 또 다시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셨지만 탕자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돈을 벌어 귀한 선물을 사드리려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떠난 탕자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꼭 참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말입니다.

5년 후 탕자는 성공했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드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탕자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네가 정말 보고 싶구나.”

<다시 생각하기>

다시 집을 떠났던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사드리겠다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진정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탕자의 슬픔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나와 가까운 존재일수록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무엇을 하셨는가를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이 시간을 내어 예수님에 대해 글을 쓴다면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도 욕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충분하게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1.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1) 예수님의 증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 6)

(1) 길이란?

(2) 진리란?

(3) 생명이란?

2) 요한의 증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 1-3)

2.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이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1) 그는 하나님이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 18)

2) 그는 사람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 14)

3)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 5)

3.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 13)

2) 부활의 승리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쫓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 25)

3) 승천의 영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6: 9)

(1) 성령을 보내주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 26)

(2) 중보기도 해주심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같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 24-25)

(3) 재림을 준비하심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요한복음 14: 28)

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1) 구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 17)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 10)

2)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 12)

3) 영생 얻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 51)

1 과 정리하기

제 2 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이가라의 광대

오늘은 당신을 나아가라 폭포로 모시려고 합니다. 어느 날 광대 한 사람이 나아가라 폭포 위에다 줄을 매어 놓았습니다. 주위에 서서 폭포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호기심이 가득 찬 눈으로 이 광대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광대는 갑자기 줄 위에 올라가더니 까마득히 깎아지른 폭포 위를 줄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모이는 이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곡예를 여유 있게 마친 그는 다시 출발했던 곳까지 줄을 타고 돌아 왔습니다.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관광객들에게 광대는 소리치며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의자를 등에 지고 저 줄을 타고 갔다 올 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관광객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큰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광대는 의자를 등에 지고는 아슬아슬한 외줄 위를 당당히 걸어갔다 왔습니다. 사람들은 아까보다 더 큰 박수와 환호를 광대에게 보냈습니다. 광대는 관광객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 의자에 누군가를 태운 채 이 줄을 타고 폭포를 건너갔다 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큰소리로 확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광대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자, 그럼 누가 내 의자에 타겠습니까? 당신? 당신? 당신...”

광대가 손가락으로 관광객들을 이리저리 쳐다보면서 다 훑어도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광대가 의자에 사람을 싣고 폭포 위를 갔다 올 수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를 믿고 그 의자에 자신을 맡길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광대를 진실로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아가라 폭포 위를 외줄타기 하는 광대를 믿든 안 믿든 우

리에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대는 우리 모두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생각하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구경꾼들의 슬픔은 자신들의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구경꾼들은 광대를 눈으로 즐기지만 했지 그 광대를 마음으로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많음을 보게 되고, 병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들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불행한 자들이 걸어간 다른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공부할 것입니다.

1. 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 믿음의 대상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 16)

(1) 그리스도란 ?

(2) 하나님의 아들이란 ?

2) 믿음의 내용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 9)

(1) 십자가란 ?

(2) 부활이란 ?

2.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1) 믿음과 구원의 관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 10)

2) 믿음과 구원의 중요성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

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에베소서 2: 8-9)

3. 믿음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며 자신을 믿음의 대상에게 전인격적으로 성령 안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1) 결단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한일서 2: 15)

2) 위탁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8: 24-25)

4. 참 믿음을 소유할 자가 누릴 영적축복은 무엇입니까?

1) 기쁨과 평강을 누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 13)

2) 기도응답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 22)

3)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 12)

4) 신앙생활의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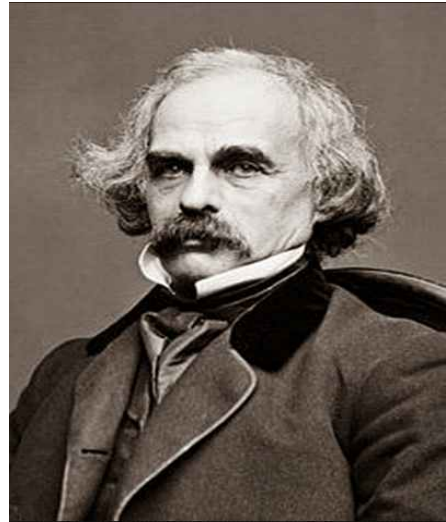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에베소서 6: 16)

2 과 정리하기

제 3 과 신앙생활 안내

큰 바위 얼굴

나다니엘 호오돈(Nathaniel Hawthorne : 1804~1864)이 쓴 책 중에 ‘큰 바위 얼굴’이란 것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 뒷산에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은 매우 인자하고 너그로우면서도 진실하고 용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의 얼굴과 같아서 동네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위로와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설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엔가 그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그 마을에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네스트라는 정직한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혹시 전설 속의 그 사람이 마을에 나타날 때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하여 매일 저녁 붉은 햇살이 큰 바위 얼굴을 마치 살아 있는 얼굴처럼 비춰어 줄 때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마음속에 그려두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전설이 말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네스트는 진실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네스트는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뒤로하고 서서 동네 젊은이들에게 다정히 말을 하고 있을 때, 붉은 저녁 햇살이 어네스트의 얼굴과 큰 바위 얼굴을 동시에 비춰 주었습니다. 이 때

사람들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부르짖었어요. “아! 전설을 이룬 사람은 바로 어네스트 할아버지다!” 라고 모두 외쳤습니다.

<다시 생각하기>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인들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다운 신앙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해 두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Living Sacrifices)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교회 일이나 교회 밖의 일이나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신실하게 사는 삶을 두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남기신 복음의 삶을 쫓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 믿음의 대상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 36-39)

(1) 필요한 것

(2) 경계해야 할 것

2.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1) 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디모데전서 6: 10)

2) 교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로마서 11: 20-21)

3) 명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

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 44)

3.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다음의 적극적인 방법들에 대해 나누고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1) 예수님의 중심의 삶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 8)

2)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3-4)

3) 기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 2)

4) 교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6-47)

5) 전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 15)

6) 봉사와 섬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린도전서 15: 58)

3 과 정리하기

제 4 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동강에 뿌려진 성경책

1866년 로버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1840-1866)라는 영국의 한 젊은이가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들어 왔습니다. 이전에 그는 영국에서 대학과정을 마치고 1863년 12월, 아내 캐롤라인(Caroline Godfrey)과 함께 중국에 도착해 상해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의 박해 상황을 알고도 무장 상선을 타고 입국한 토마스는 결국 26세의 나이로 순교했다. 이상규 교수 제공

그러나 바로 그 때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캐롤라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남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은 배우자와 사별이라고 말한 현대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은 토마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아픔 속에서도 그가 한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조선의 천주교 박해를 피해 목선을 타고 산둥성에 도착한 두 명의 한국인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면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에 대한 선교열에 불타던 토마스에게 기회가 찾아 왔습니다. 미국이 프레스턴의 소유인 상선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호가 조선에 입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1866년 7월 ‘한국에 전해 줄 몇 권의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통역겸 안내자로 승선했습니다. 7일에 황해도 대동강 앞바다에 닿을 내린 상선은 조선인들의 감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조선에서는 서양에 대한 적대감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1865년에는 러시아 선박이 함경도 연안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여 돌

아갔고, 1866년에는 상하이 주재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두 번에 걸쳐 서해안에 내항하여 통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면호가 입국하자 조정에서는 서면호의 입국을 삼엄한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면호가 무역선이면서도 중무장을 하고 있는데다가 가까운 강변에 닻을 내리고 좀처럼 물러갈 기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주시하던 조선당국으로서서는 서면호와 대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일간 양각도 서쪽에 정박한 서면호가 물러갈 기미가 없자 평양 감사 박규수는 태도를 바꾸어 직접 강변으로 나아가 군대를 지휘하여 서면호를 침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서면호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물으로 올라오려고 하자 육지에 있던 병사들이 올라오는 선원들을 칼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배에 남아있던 토마스 선교사도 지니고 있던 몇 권의 한문성경을 가지고 물으로 향해 헤엄쳐 나왔습니다.

1886년 9월 2일 토마스 선교사도 다른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던 병졸 박춘권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토마스는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병졸 박춘권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주려 했으나 거부하는 바람에 전해 주지 못했습니다.

비록 죽음이라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토마스는 용감하게 성경을 나누어준 것입니다. 박춘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주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토마스가 건네준 성경을 읽고 후에 예수를 믿어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조카 이영태도 후에 주님을 영접하고 한국인 성서 번역위원회에 가담하여 성경번역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서면호의 불타는 광경을 목격한 이들 가운데 12세 된 최치량은 토마스가 주는 세 권의 성경을 받았습니다. 토마스가 건네준 성경을 보관하고 있던 이 소년은 겁에 질려 영문주사(營門主事) 박영식에게 주었고, 박영식은 이것을 뜯어 벽지로 발랐습니다 후에 최치량은 성경책으로 도배한 박영식의 집에 갔다 벽에 붙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뜯어 벽지로 바른 이 집은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비록 너무나 짧은 삶을 조기에 마감한 선교사 토마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생각하기>

역사 속에서 책 한 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의 이야기에 나오는 “토마스 선교사”처럼 남에게 전해 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경우는 단 한 권, 성경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삶까지 함께 희생하면서 낯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이 성경에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통해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이 지닌 초자연적인 능력을 과소평가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데서 생기는 소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만큼 성경은 작아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참되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500년 동안 기적적으로 보존해주셨습니다. 많은 황제와 폭군들이 성경을 영원히 매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1) 성경의 영감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 16)

2) 성경의 해석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 20-21)

2.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며, 이 두 성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성경의 주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한복음 5: 39)

(1) 구약

(2) 신약

3.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 구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 31)

(1) 예수 믿게 함

(2) 생명 얻게 함

2) 신앙생활의 지침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 16-17)

(1) 성경의 기능

- ① 교훈
- ② 책망
- ③ 바르게 함
- ④ 의로 교육

(2) 성경의 목적

- 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시켜 준다
- ② 선한 일을 하도록 무장시켜 준다

4. 성경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 3)

1) 읽는 자

2) 듣는 자

3) 지키는 자

5.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 구약

(1) 모세오경

(2) 역사서

(3) 시가서

(4) 예언서

2) 신약

(1) 공관복음

(2) 사복음서

(3) 역사서

(4) 바울서신

(5) 공동서신

(6) 예언서

4 과 정리하기